칼 럼

장 기 채 주 필

# '국내로 가는 여름휴가' 경제도 살린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휴가'라는 말만 들어도 누구나 맘이 설렌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얄팍한 호주머니가 발목을 잡지만 일상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올 여름도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계획할 것이다.

잘 놀아 보라고 멍석을 깔아줘도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잘 놀지 못하는 어른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여가 시간에는 무조건 잘 놀고 잘 쉬어야 한다는 '휴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말 '휴가'와 영어 '테크닉'을 합성한 단어인 듯 한데 잘 놀고 잘 쉬는 게 경쟁력이라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가철을 맞은 기업들은 휴가 사용 장려에 나섰다.

물론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53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여름 휴가비를 지급 하겠다"고 밝힌 곳은 68.5%로 지난해보다 1.8% 늘었다고 한다.

불황을 맞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여름휴가비 지급 기업 비중이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평균 휴가비도 61만7천원으로 지난해 60만4천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최근 부진한 체감 경기를 살리려면 내수 시장을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가 효과적일 것이다.

국민이 하루씩만 국내 여행을 늘리면 지역경제에 3조원정도가 흘러가고 일자리 5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수 진작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해마다 휴가철이면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공항에서 장사진을 이루는 여행객 중 일부만 국내로 발걸음을 돌려도 내수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의 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동안 우리는 고도성장의 불가피한 속성으로 논다는 개념 자체가 비정상으로 취급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나 사회의 자율적 기관들도 서민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했고 그 부작용으로 이른바 퇴폐성 오락과 행락풍속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휴가로 주어지는 여가는 배움의 시간이기도 하다. 농사를 짓는 땅도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을 하고 겨울에는 휴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듯이 배움을 통한 휴식 과정을 거쳐야만 지속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휴가 바람은 자칫 허영과 낭비의 바람도 함께 몰고 오기 마련이다.

휴가 본래의 목적은 휴식과 건강에 있다. 올해 여름휴가 일수는 평균 4.4일로 전년(4.3일)에 비해 0.1일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4.9일, 300인 미만 기업이 4.2일이라고 응답했다. 주말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휴가일수는 6~9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기업별 휴가 시기는 8월 초순(49.3%)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7월 말(29.7%), 8월 중순(5.0%)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행을 자제하려는 분위기는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위축된 소비심리가 여름휴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여행객 증가율은 2011년 13.2%에서 2014년 0.6%로 감소했다. 물론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심리가 중요하다.

이제 온 국민이 여행을 장려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 전체가 공동체 의식을 다져야 한다.

휴식은 대나무의 마디와 같다고 했다. 마디가 있어야 대나무가 성장하듯 사람도 기업도 쉬어야 강하고 곧게 성장 할 수 있다고 한다. 경제 살리기는 당장 내 나라에서 보내는 여름휴가가 첫 걸음일 것이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가 시간 및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76.7%)가 가장 많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건강함에 감사하자

아침에 눈을 뜨면 싱그러운 공기와 햇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면서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은 건강함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매스컴을 보면 하루에도 사건 사고로 아까운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살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모르면서 생활한다.

살면서 돈이 없다고 매일 불평 불만하면서 불행을 노래하며 투덜거리며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모르고 생활한다.

수많은 병원의 병실에서 하루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에서부터 중증의 진단명을 갖고 있는 중증환자까지 다양하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남의 일처럼 살아간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면서…

두 눈뜨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이 행복이요, 내 몸이 큰 재산인 것을 동굴에서 18일 만에 구출된 태국의 12명의 소년들을 보고 전 세계가 기뻐했다.

그 동안 동굴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다닌 나는 매일매일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동굴에 갇히지 않은 것에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평생 동안 1분1초도 쉬지 않고 내가 잘 때도 뛰어주는 심장이 있기에 오늘의 나는 살아있는 것이다. 주인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심장에게 단 한 번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을 모르고 생활한다. 이 시간 한번이라도 자기 자신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자.

언더우드 기도문처럼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필자 역시 건강함에 감사 할 줄 모르면서 살아가지만 이 시간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것이다.

건강을 지키는 데는 운동이 제일로 처음 시작이 어렵지 실천이 되면 꾸준하게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이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걷기운동 등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을 것이다.

우리는 건강함에 감사 없이 생활해왔는데 이제 부터라도 건강함에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국중균 / 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社 說

#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 5월 기준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아이 수가 5.8명에 그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출생아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월별 최저 기록을 3년 2개월 연속으로 경신했다. 혼인 건수도 5월 기준 가장 적었다. 이처럼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기피 현상에다 아이 갖기를 꺼리는 심리가 만연하고 있으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통일이 아니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 5300명으로, 1년 전보다 2700명(9.6%) 줄었다. 5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38개월 연속으로 월별 역대 최저기록을 갈아치웠다.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3만 4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00명 감소했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올 한 해 출생아 수가 30만명을 넘기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8명으로 5월 기준으로 2000년 집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5월 기준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700명(2.9%) 늘어난 2만 4700명으로 집계됐다. 5월 기준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고 이 영향으로 자연증가분(출생자에서 사망자를 제외한 수치)은 600명에 그쳤다. 자연증가분은 2016년 5월 1만 1216명이었지만, 2017년 6537명, 지난해 4000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같은 달 신고된 혼인은 2만 3100건으로, 역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00건(7.6%)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9900건으로, 5월 기준으로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출산율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겠다.

## 생활정보전화

| | |
|---|---|
| ▲ 이주여성 긴급전화 | 1577-1366 |
| ▲ 응급질병상담 | 1399 |
| ▲ 미아 · 가출인 신고 | 182 |
| ▲ 여성 긴급전화 | 1366 |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 1388 |
| ▲ 아동보호전문기관 | 1577-1391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 ▲ 응급의료센터 | 1399 |

## 긴급전화

| | |
|---|---|
| ▲ 기상예보 | 131 |
| ▲ 법률구조상담 | 132 |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 222-5666 |
| ▲ 광주 남성의 전화 | 673-9001 |
| ▲ 광주 여성의 전화 | 363-7739 |
| ▲ 수도 고장신고 | 121 |
| ▲ 전기고장 신고 | 123 |
| ▲ 가스사고 신고 | 383-0019 |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 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 장·발 행 인 김 평 호
편 집 인·편 집 국 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